

2009년 1월 12일 월 말씀

요즘은 불경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부지런히 연구해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관리도 하면서 신앙인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따라오는 애들 잘 못 기르면 잘못된 사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기르면서 항상 신앙적으로 해나가야지 자기 분위기에 의해서 기르면 안 됩니다. 자기식의 세계가 아니라 결국은 개성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딱 끼고서 매일 기르지만 결국은 자기 개체가 생활하는 것이니까 개체의 삶을 살도록 잘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결국 지도자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핵심은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신앙생활 하는데 못하게 계속 잡아당깁니다. 밤에 두 명이 같이 잠을 자는데 한 명이 추우니까 이불을 더 잡아당기게 되서 못 덮게 되는 사람이 생기듯이 세상이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 합니다. 제일 큰 것은 조금씩, 조금씩 하늘 방향으로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운을 타고난 사람은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섭리 안에서 모든 교류를 하면 더 효과가 있고 이상이 생긴다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섭리 안에서 출세해도 엄청나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뿐 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큰 재벌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신앙인들입니다. 갑부들이 기부도 많이 하는데 보면 신앙인이 많습니다.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도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것처럼 신앙 안에서 해야 합니다.

꼭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고서 차근차근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이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내가 일평생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신앙생활 잘 하라’입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보다 더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몇 번씩 읽어봤습니다. 문자 그대로 100%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당해봤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내가 지옥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이미 미국사람이 20

년 전에 썼다고 해서 안 썼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우리 교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근본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그네가 가다가 주막집 전경이 좋다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다보면 자기 불일을 못 보지 않습니까? 것처럼 이 세상은 가는 과정입니다. 가는 노정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년 20년 이지만 하늘이 볼 때는 1년을 1시간씩 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을 심어줘야 사람들에게 웃음이 옵니다. 만날 쇼 하는 사람들은 쇼 하면서 웃기고 코미디언은 코미디로 웃깁니다. 이것을 성경 잠언서에 솔로몬이 미친 웃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친 사람이 웃듯 그런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웃음이 근본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근본을 심어줘서 그렇게 살면서 웃을 때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렇게 근본으로 항상 따져서 해야 됩니다. 신앙 잘 못 해놓으면 다 부습니다. 집을 다 부수고 다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이것을 알고 잘 해야 합니다. 근본을 심어줘야 합니다. 웃는 것으로 치료가 된다 하지만 임시적인 것입니다.

죽으면 인생은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옛날과 다릅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얘기 할 것을 들은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늘 이야기 하지만 그릇을 새것을 가지고 와야 새롭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모두 해나가야 합니다.

사진도 천만 장 찍어도 소용없고 필요한 한 장만 잘 찍으면 됩니다. 미리 찍어놓고 검토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딱 쳐다보면서 거기서 금방 찍어버려도 안 됩니다. 사람 눈이 정확하지만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열두 군데도 더 쳐다보면서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디냐 해서 거기서 딱 한 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대로 찍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로 찍지 사진 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전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엄청난 필름 사다가 찍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됐었구나.’ 하면서 지나간 다음에 다 알게 됩니다.

말씀을 설교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년 들어도 헛일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하면 돼있고 안 하면 안 돼 있습니다. 하면 되고 안하면 열흘가도 그냥 있습니다. 친구에게 편지 쓰는 것도 열흘 동안 생각만 하고 쓰지 않으면 써지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쇼크 받으면 쓰게 됩니다. 친구가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면 얼른 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가서 부딪히면서 직접 해봐야 합니다. 내가 설교를 이만 번씩 했어도 끝이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깨달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다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또 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이미 계산이 나왔습니다. 10년 남았다 해도 10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잘 해야 3년 뛰는 것입니다. 자는 시간 있지, 글 쓰는 시간 있지, 무슨 시간 있지, 이런저런 시간 쓰다보면 공적시간 3년 밖에 없습니다. 이 3년을 나눠서 돌아다니면 헛일입니다. 앉아서 말씀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시간도 아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왜 금방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하면 금방 안 지나갑니다. 인생 살다 보면 수십 가지 일을 하게 되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수십 가지 일을 시간을 나눠보면 한 건에 불과 몇 시간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합니다. 모두 잘 하지요? 잘 알아듣게 해줘야 합니다. 모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쫓아가기 바쁩니다. 예수님 쫓아가기가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바짝 쫓아가야 되니까 바쁜 것입니다.

시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것, 저것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해라는 도표를 그린 것입니다. ‘하루 확대 인생 일생’ 이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리 일을 해도 할 일을 다 못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라고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꿈만 이루는 것은 헛일이다. 내 꿈을 이뤄야 한다.’ 고 예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꿈을 이루라고 그 외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게 해준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너무 너무 큰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 섬리나 이렇게 젊은이들이 믿지 다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